

96. 5. 14

성폭행 당한뒤 에이즈 고민 자살

13일 오전 2시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76 씨티21 오피스텔 지하 1층 바닥에 이 건물 9층에 살고 있던 정아무개(26·여·피아노 강사)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오피스텔 경비원 장인규(53)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

경찰에 따르면, 정씨의 방 안에서 “3년 전 외국에서 사업하는 동포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, 몸에 두

드러기가 난다. 에이즈에 걸린 것 같다. 죽고 싶다”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으며,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. 경찰은 숨진 정씨가 최근 애인 김아무개(27)씨에게 “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” “죽고 싶다”고 말해왔다는 점으로 미뤄, 정씨가 에이즈 감염 공포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 구본준 기자